

軍隊內 氣合과 이에 대한 士兵의 反應統計

具 滋 賢

陸 軍

陸軍本部의 1978年度 上半期 事故調査에 의하면 各種 私的制裁 및 安全事故의 23%가 古參兵 橫暴, 13%가 私的 制裁, 9%가 處罰憂慮, 그리고 18%가 服務厭症이다. 服務厭症도 上官의 氣合과 관계가 있다면 氣合과 관계된 事件이 모두 68%에 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部隊內에서 氣合이 어느 정도 행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士兵의 反應을 알아 보기 위하여 前·後方 步兵戰鬪部隊의 士兵을 대상으로 1968년과 1978년의 10년 간격을 두고 각각 500명의 標集을 設問紙로 調査하였다.

특히 1978년 10월 조사에서는 代表的인 표집을 얻으려 兵科와 계급에 따른 比率標集을 얻었다.

구타의 경험유무에 대한 자료가 表1에 나와 있다. 두해에 걸쳐 약 30%의 士兵이 구타를 경험하고 있으며 1968년과 1978년에 큰 減少 추세는 보이지 않는다. 구타를 많이 하는 主動人物은 古參兵, 內務班長, 小隊長, 그리고 分隊長의 순인데 1968년과 1978년 사이에 별다른 차이는 보이지 않고 다만 최근에는 內務班長의 구타가 좀 減少했다는 것만이 示唆되고 있다.

氣合 경험 유무에 대한 결과는 表2에 나와있

표 1. 구타의 경험유무 (%)

調 査 年 度	없 다	있 다					계
		고 참 병	소 대 장	분 대 장	내무반장	기 타	
1968년	68	10	5	4	10	3	100
1978년	71	10	5	5	2	7	100

표 2. 氣合 경험의 유무 (%)

調 査 年 度	없 다	있 다					계
		고 참 병	소 대 장	분 대 장	내무반장	기 타	
1968년	64	10	7	4	13	2	100
1978년	43	7	17	10	5	18	100

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氣合을 경험한 士兵數가 최근에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런 증가는 주로 소대장과 선임하사가 10년전보다 氣合을 많이 주기 때문이다. 한편 內務班長의 기합은 최근에 줄어들었음을 示唆한다. 氣合은 古參兵, 小隊長, 內務班長이 거의 고루 주고있다.

구타나 기합을 받았을 때 士兵의 反應을 1978년 자료에서 보면 62%가 “참고 견딘다”고 대답하고 17%가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싶다”고 말하고, 15%가 “복수를 생각”하고, 4%가 “탈영”, 그리고 2%가 “자살할 것”을 생각한다. 士兵들의 議論대상자는 1978년 조사에서 아무도 없다는 士兵이 22%나 된다. 의논상대로는 동료가 47% 적속상관이 16%, 分隊長이 8%, 그리고 내무반장이 6%이었다.

1978년 자료에 보면 근사한 士兵의 약 27%가 自殺을 생각한 일이 있는데(標集 크기는 $N=500$) 10년전인 1968년에는 그 數值가 19.1% ($N=230$)로 약간의 자살 잠재성을 가진 士兵의 數가 그간 增加했음을 나타낸다. 自殺을 생각한 일이 있는 사병중 입대후 처음으로 自殺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數는 1978년에 89%인데 (標集 크기 $N=120$), 10년전인 1968년에는 50% ($N=44$)로 입대후 自殺을 처음 생각하는 士兵의 비율이 최근 높아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 최종 결과는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事例數가 너무 적다.

参 考 文 献

具滋賢. 人間關係論的 軍指揮統率에 관한 心理學的 研究. 未發表論文, 1979.